

# 비극성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 결말 구조 연구

- <이생규장전>, <운영전>을 중심으로 -

김 형 석\* · 류 수 열\*\*

## ■ 목 차 ■

1. 서론
2. 고전소설 결말 구조의 유형과 특성
3. <이생규장전>, <운영전>의 결말 구조와 비극성
  - (1) <이생규장전>의 결말 구조와 비극성
  - (2) <운영전>의 결말 구조와 비극성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고전소설 작품 속에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결말 구조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결말 구조의 유형은 서사 주체와 세계의 화합, 서사 주체의 패배, 대결의 유예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에는 운명에 대한 서사 주체의 수용적 태도가 나타나 있으며, <운영전>은 작품 내의 비극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서사 주체가 패배하는 일반적인 비극의 구조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특징들은 고전소설 향유층의 세계관과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고전소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의 결말 구조가 갖는 복합적 특성, 주제 의식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핵심어** : 고전소설, 서사 구조, 비극적 결말, <이생규장전>, <운영전>

\* 제1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 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고전소설의 결말 구조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고, 이를 실제 작품의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결말 구조 분석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기존 문학교육계에서 통용되던 비극적 결말의 논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목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고전소설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는 소위 ‘해피엔딩(happy ending)’일 것이다. 고전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뛰어난 외모나 비범한 재주를 지닌 인물들이며,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행복한 결말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죄를 지은 자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필귀정의 구조 역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는 이를 두고 “충효절의와 가언선행(嘉言善行)을 극단으로 숭봉하던 유학(儒學)국인 만큼 이를 고창(高唱)하는 권징류가 많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sup>1)</sup> 또 다른 국문학 개설서인 김기동의 『이조시대소설론』에서도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결말 양상으로 “마지막 단락에 가서 주인공이 고관대작에 올라 부귀공명을 일생에 누리는 행복한 결미를 지어놓음으로써 해피엔드의 결미법을 썼기 때문에 행복담으로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sup>2)</sup> 하지만 이 같은 국문학 개설서류의 언급들이 현전하는 모든 고전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며, 이를 일반화하는 것 역시 성급한 일이다.

고전소설들의 특징을 개괄한 개론서의 언급들과 함께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라는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학교 교육의 영향이다. 대중들이 고전소설을 접하게 되는 일

1) 김태준 저, 박희병 교수,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59면.

2)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1, 50면.

반적인 통로는 교과서이며, 교과서에 수록된 국문 영웅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 작품들이 사필귀정, 권선징악의 결말 구조로 대단원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을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이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실 교과서 자체보다는 아래와 같은 학습용 도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옛날이야기는 결말이 어떻게 끝나니? 착한 주인공이 복을 받으면서 끝나지. 흉부도 그랬고 심청이도 그랬고 춘향이도 그랬어. (중략) 우리는 <흥부전>을 읽으면 흥부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반대로 놀부처럼 욕심을 부리고 나쁜 마음씨를 가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지.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담고 있는 ‘권선징악적’ 교훈이자 주제란다. 착하면 복을 받고 못되면 벌을 받으니 부디 착해지라고 말하는 거야.)

이처럼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는 결말은 ‘옛날이야기’의 일반적인 결말로 인식되며, 흔히 서구적 근대소설과 비교되곤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서사 갈래를 정의하는 기본 요건이며, 서구 근대소설에서 이러한 대결의 양상이 선한 자아의 패배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미적 범주 중의 하나인 비장미라는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근대소설의 결말 양상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함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통찰을 작품에 형상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강승임 · 이서영, 『중학생이 즐겨 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맞춘 국어개념 153가지 정리』, 아주큰선물, 2011, 169-180면. 이 외에도 현재 출판되고 있는 각종 참고서, 문제집에서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해피엔딩, 권선징악, 전형적 인물, 우연한 만남’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서인석 외,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6. 이민희 외,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창비, 2017 참조.) 이는 기존 국문학 개설서에서 제시한 설명들을 무비판적으로 일반화시켜 사 용해온 병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부조리함, 특히 악한 자가 승리하는 현실 세대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왔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백이와 숙제의 비극적 최후를 두고 ‘천도(天道)’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드러낸 바 있으며, <원생몽유록>과 같은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을 찾을 수 있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비극’의 개념 역시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학(Poetica)』의 정의에 따르면 비극은 ‘심각하고, 일정한 크기가 있으며, 그 자체로 완결된 행동의 모방으로서…연민과 두려움을 일으켜 그런 정서의 카타르시스를 행하는 것’<sup>4)</sup>이다. 좁은 의미에서 ‘비극’은 그리스 비극이라는 장르와 전통에 속하는 작품들을 가리키는 장르사적 명칭이라 할 수 있지만,<sup>5)</sup> ‘비극’이라는 용어와 ‘비극성’의 개념은 장르를 초월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그리스 비극의 전범을 통해 현대문학 작품들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 비극의 개념은 한국의 고전·현대문학 작품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또는 서구에서 유래한 비극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의 문학작품들에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문화사적 보편성의 맥락 안에서 서구의 이론적 배경을 한국의 문학작품들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이 사실이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연민과 두려움을 일으켜 정서의 카타르시스를 행하는’ 작품들이 갖는 보편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시학』으로부터 유래된 ‘비극’의 개념과 특성들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보편성만을 강조하다보면 개별 작품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하물며 서구의 이론을 한국의 고전문학 작품들에 적용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문학적 전통

4) 아리스토텔레스 저, 이상섭 역, 『시학』, 문학과지성사, 2005, 28면.

5)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 파악을 위한 시론-아기장수 설화에서 바라본 ‘비극’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3,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87면.

과 문화적 특질이 간과되고 곡해되는 데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양의 ‘비극’, ‘비극성’ 개념을 개별 고전 소설 작품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작품이 갖는 보편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과, 그 논란이 갖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학습자들의 ‘비판적 성찰’을 함양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지식은 어느 한 쪽의 결론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쟁점 자체를 학습자들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쟁점을 통해 지식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지식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해 나간다.<sup>6)</sup>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한 작품이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이다. 두 작품은 고전소설사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한 비극적인 결말 구조의 작품으로 평가받곤 하였으며, 빼어난 작품성으로 오랫동안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읽혀온 작품이다.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남녀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이 실패는 주인공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생규장전>의 주인공 ‘이생’은 부인 ‘최랑’과 백년 해로하고자 하지만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 이생은 상심하여 병들어 죽는다. <운영전>의 남녀 주인공은 신분적 차이와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을 추구하지만 실패하고, 자살로 파국을 맞는다.

이 연구에서는 고전소설 작품 속에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결말 구조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중심으로 결말 유형의 특성이 실제 작품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본 후, 이러한 결말 구조의 특성 분석이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에 대

6) 류수열·이지선·김세림,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사설 시조 향유층 논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116~118면.

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고전소설 결말 구조의 유형과 특성

일반적으로 서사의 단계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분석되곤 한다. 그런데 이는 행위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한 것이라기보다 갈등의 양상에 따른 단계 구분이다. 이 갈등의 양상에서 결말은 전체 갈등 상황을 완결 짓는 부분에 해당한다. 서사는 제시된 상황 및 사건에 대한 서사 주체의 대응 행위에 의해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서사 속 사건은 서사 주체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며, 주체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취한다. 주체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작품의 결말은 서사 주체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종료되는 지점, 즉 부정적인 후행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인물의 운명은 실패 혹은 성공으로 분명해지며, 등장인물이 자신의 마지막 위치를 이해하거나, 독자가 등장인물의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sup>7)</sup>

Gross와 Giannone은 이야기를 대상(object)으로서의 이야기, 행동(action)으로서의 이야기, 형식적 통합체(formal entity)로서의 이야기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A. 끝(over)으로서의 결말: 인쇄된 낱말이 끝날 때
- B. 해결(resolution)로서의 결말: 극적 갈등이 종식되고 행동들이 해결점에

7) C. Brooks, & K. P. Warren, *(The) Scope of fiction*, 안동림 옮김, 『소설의 분석』, 현암사, 1990.

도달할 때

- C. 예술적 실현(fulfillment)으로서의 결말: 예술적 구조로서의 이야기가 통합될 때<sup>8)</sup>

문학 연구에서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논할 때 대상으로 삼는 것은 B와 C의 결말이다. B의 경우는 주체와 세계의 대립 결과 주체와 세계가 화합을 이루든 파국으로 끝나든 일련의 갈등 자체가 종결되는 지점으로서의 결말이다. 한편 C는 갈등의 종식 여부와는 별개로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통합된 예술적 구조로 나아가는가에 따른 것이다.

이때 B와 C의 결말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성 전략에 따라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예컨대 김유정의 <봄봄>에서, ‘B.해결로서의 결말’은 장인인 ‘봉필’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다독이는 장면으로 제시된다. 이 장면을 갈등의 해소로 볼지 유예로 볼지는 독자의 해석에 맡긴다 하더라도, 일련의 행동들이 종식되는 지점임에는 틀림없다. <봄봄>은 이처럼 해결로서의 결말을 먼저 제시한 후 ‘C.성취로서의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장면의 서술 순서를 뒤바꾼 것인데, ‘봉필’의 가랑이를 잡던 주인공이 장모와 ‘점순’에 의해 제압당하며 짓는 황당하고 억울한 표정을 보여주며 작품은 통합된 하나의 구조를 완결 짓는다.

고전소설 작품의 결말 구조를 분석할 때에도 B와 C를 구분하여 고려하여야만 작품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경우 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서술되기 때문에 B와 C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B와 C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작품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령 <심생

8) Gross, B. & Giannone, R., *The Shapes of Fiction*(윤분희(1997), 『한국 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결말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0면에서 재인용.) Gross와 Giannone이 사용한 ‘fulfillment’라는 용어에 대해서 ‘성취’, ‘충족’ 등의 번역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당 유형 분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현’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전>의 경우, 주요 인물인 심생과 처녀의 서사가 종료된 후 ‘매화외사(梅花外史)’의 평이 덧붙여 있다. 이는 B를 제시한 후 추가적인 서술을 통해 C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적 실현으로서의 결말’은 작품의 미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 및 종결 여부는 부차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결말/비극적 결말 여부를 논할 때에는 ‘해결로서의 결말’이 어떠한 양상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가 겪는 마무리 양상을 유형화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서사 주체가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하여 화합하거나 승리하는 결말
- ② 서사 주체가 세계와의 대결 결과 패배하고 좌절하는 결말
- ③ 서사 주체와 세계의 대결이 해결되지 않고 유예되는 결말

①의 유형이 행복한 결말의 유형이다. 고전소설에서는 <유충렬전>, <조웅전>, <홍길동전>과 같은 영웅소설들과 <홍부전>,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계 작품들, 기타 술한 작품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고전 소설의 결말이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는 데 대해 한국인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원한에 대한 기피’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세계와의 대립에서 주체가 패배하는 비극적 결말은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원령에 대한 공포심, 또는 원한에 대한 기피는 원한 자체가 만들어질 상황을 조성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원한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진행해 나가는 심리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sup>9)</sup>

②의 유형이 바로 비극적 결말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극을 부정한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비극을 통해 얻는 카타르시스의 의의를 높이 평

9) 서대석, 『고전 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쁨의 감정 못지않게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도 미적 쾌감을 얻을 수 있다. 독자는 비극을 보며 자신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던 ‘비극적 사건/감정’을 직·간접적으로 상기하고, 자신의 감정과 작중 인물의 감정을 동일시하게 된다. 이처럼 슬픔의 감정을 통해 얻는 미적 체험과 특질을 ‘비에미’라고 한다.<sup>10)</sup> 독자에게 ‘슬픔, 연민의 감정을 유발하는 작품 속 요소’를 페이소스(pathos)라 하는데, 이 페이소스는 비에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의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이생규장전>과 <운영전>,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임경업전>, <주생전>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는 중심 서사에서 주인공들이 끝내 자신의 바람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결말이 타나난다. 또한 <아기장수 설화>, <선녀와 나무꾼>의 주요 각편들에서 비극적 결말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의 유형은 ①과 ②의 유형과 구분된다. ①과 ②의 결말이 ‘완결형 결말(closed form)’이라면 ③의 유형은 ‘개방형 결말(open form)’이다. Adams에 따르면 완결형 결말은 ‘주된 갈등의 해결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해결된 갈등을 포함시키는 문학 형태’이며, 개방형 결말은 ‘인물의 이어지는 삶이나 작중 갈등 상황의 영향 및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결말로 주된 갈등의 미해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해결된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문학’이다.<sup>11)</sup>

③의 유형을 비극적 결말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서사 주체를 괴롭게 하는 갈등이 해결의 국면에 이르지 못하고 유지된다는 점은 이를 비극적 결말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인물의 향후 행적·운명이 독자의 상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10) ‘비에미’는 슬픔으로부터 비롯되는 미적 체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비장미’는 ‘비에미’ 중 장엄한 승고를 수반하는 것에 국한되는 개념이다. (‘비에미’ 용어에 대한 논의는 김효, 『서구 비극과 판소리의 비교를 통한 페이소스의 재조명: 비극성을 초극한 판소리의 비에미 담론을 위한 시론』, 『외국문학연구』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참조.)

11) Adams, R. M., *Strains of Discord-Studies in Literary Openness*(윤분희, 앞의 글, 1997, 15~16면 참조.)

점을 고려한다면 ③의 결말 유형을 ‘비극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속단일 수도 있다. ③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허생전>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서사의 주체인 ‘허생’은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이며, 작중 에피소드들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허생과 사회 구조 사이의 갈등이며, 이 갈등은 이완 대장을 향한 허생의 꾸지람을 통해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허생은 종적을 감추고 작품은 매듭지어진다. 이와 같은 <허생전>의 결말에 대해서 행/불행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허생이 세계와 화합하거나 갈등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므로 행복한 결말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생은 장사 수완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세계의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바라던 이상은 이루지 못하고 숨는다. 또한 허생이 세계와의 갈등 속에 완전히 패배하고 좌절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허생이 세계와의 갈등 결과 자신이 속해 있던 조선 사회를 버리고 떠난 것은 일종의 패배 선언이라 볼 여지도 있으나, 허생이 이상(理想) 국가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한 인물임을 고려한다면 허생의 향후 행적이 허생의 패배와 좌절로 끝나리라 예측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

개방형 결말에 대한 이와 같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논의는 그것이 작중 갈등의 양상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라 총체적 형식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개방형 결말 구조의 역할은 갈등의 종결 양상보다 독자에게 미치는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통해 작품 전체의 미적 완결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Adams에 따르면 완결형 결말은 ‘심리적 안정 상태(Psychological repose)’를 주며, 개방형 결말은 지속적으로 ‘심리적 긴장 상태(Psychological tension)’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 결말의 유형에 대한 완결형/개방형의 구분은 갈등의 양상에 속하기도 하지만 앞서 제시한 ‘C’ ‘성취로서의 결말’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성취로서의 결말’에서 갈등의 종결 양상은 부차적인 것이며, 따라서 개방형 결말에 대한 행/불행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다.<sup>12)</sup>

고전소설 작품 중에는 완결형 결말의 비율이 높고, 개방형 결말의 예는 고전소설보다 현대소설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 구조는 향유층의 인식과 세계관이 작품에 반영된 결과이며,<sup>13)</sup> 이는 비극적 결말 구조의 고전소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사의 결말 구조에는 인간의 삶과 예술의 관계라는 문화사의 보편적 특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 차이와 한국 문학의 특수성 역시 반영되기 마련이다.

### 3. 〈이생규장전〉, 〈운영전〉의 결말 구조와 비극성

#### (1) 〈이생규장전〉의 결말 구조와 비극성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은 문학사적 의의와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작품으로, 교과서 수록 빈도 역시 높다. 교과서에 수록될 때는 항용 작품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동반되는바, 통상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a) 최 여인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고, 이생은 최 여인을 잊지 못해 고독하게 살다가 결국 병을 얻어 죽게 된다. 이렇게 절개와 고독으로 인한 두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은 이 작품의 비극성을 한층 고조시켰는데, 이는 전대 전기 소설을 독창적으로 계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12) 결말의 유형은 내화형, 확장형, 반전형, 회귀형, 개방형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방현석, 『서사패턴 959』, 아시아, 2013 참조). 그러나 이 같은 구분들 역시 갈등의 종결 양상보다는 작품 전체의 미적 완결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

13) 서대석, 『고전 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정병헌, 『관소리의 발생과 전승기반』, 『18~19세기 예술사와 관소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59-66면 참조.

14)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2014, 95면. 이 교과서는 2011 개정 교육

(b) 이 작품에서 이생과 최씨는 사랑을 방해하는 세계, 즉 봉건적 관습에 의한 부모의 반대, 흥건적의 침입으로 인한 최씨의 죽음 등에 맞서서 사랑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록 소설의 끝에서 최씨가 저승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들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난 듯 보이지만, 이생 역시 최씨를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점에서 이들의 애절한 사랑은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sup>15)</sup>

위와 같은 교과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생규장전>의 비극성에 대한 진술은 시련을 견디고 인연을 이어가려 하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최랑’과 ‘이생’의 운명, 그리고 이생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의 결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생규장전>의 갈등 구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층적으로 발생한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뜻 같지 않다.’라는 작중 최랑의 말처럼, 이생과 최랑의 애정과 이별은 3번에 걸쳐 발생한다.

처음으로 이생과 최랑이 마주하는 것은 부모의 반대이다. 이생의 부모는 밤마다 최랑의 집에 가는 이생을 두고 꾸짖으며 울주로 내려보낸다. 이생과 헤어지게 된 최랑은 상사병을 앓게 되고, 이 상사병은 이생의 부모와 최랑의 부모가 혼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인이 된다. 이생과 최랑이 겪는 첫 번째 난관은 반동적 인물의 개입에 의한 것이나 부조리한 현실과의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 이생의 부모가 이생이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혼담을 사양하긴 하지만, 이는 최씨 집안의 요청에 의해 곧바로 해결된다.

이생과 최랑은 혼인을 올리고, 이어 두 번째 난관을 맞게 된다. 흥건적의 난이 발생하자 이생과 최랑은 피난을 가던 중 헤어지게 되고, 최랑은 죽음을 맞는다. 이 두 번째 난관은 바로 세 번째 인연으로 이어진다. 홀로 도망간 이생은 불에 탄 옛집에 돌아오고, 그 곳에서 최랑을 만나게 된다.

과정에 따라 편찬된 것이다. 이후 인용하는 교과서도 동일하다.

15)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185면.

이 세 번째 인연은 몇 년간 유지되지만, 이후 이승과 저승을 나눈 세상의 이치에 의해 끝을 맞게 된다.

여자가 말하기를, “저승의 운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천제께서 제가 그대와 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이 장애를 만났다고 해서 환체를 빌려 주어, 그대와 잠깐이나마 슬픈 마음을 달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래 머물러 이승의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올라 있으니 더 오래 보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 세상에 연연해하면 명을 어기는 것이니 나에게 죄를 줄 뿐 아니라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입니다. 저의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바람과 햇빛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sup>16)</sup>

<이생규장전>의 주체인 이생과 최랑을 좌절케 하는 장애물은 부모님의 반대, 흥건적의 난, 이승과 저승의 이치 순으로 제시된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두 번째 장애물과 세 번째 장애물이다. 두 번째 장애물은 최랑의 죽음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란(戰亂)은 개인의 의지로 해소하기 어려운 성질의 장애물이다. 난리 중에 최랑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이생규장전>의 비극성은 이 대목에서 절정에 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용된 최랑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들의 억울함은 천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최랑은 환생하게 된다. 그러나 최랑의 환생은 바로 세 번째 난관의 원인으로 이어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생과 최랑이 겪는 세 번째 난관은 이들을 방해하는 부조리한 현실이나 횡액이 아니라 두 번째 난관이 해소된 결과물인 것이다. 이생과 최랑이 세 번째 인연을 종결짓는 것은 주체가 부조리한 상황이나 세계와 대립하여 실패한 결과가 아니다.

세 번째 이별을 앞둔 최랑의 태도 역시 앞선 두 번의 이별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 두 사람이 마주한 난관에 대해서 이생의 태도가 수동적인 반

16) 김시습, 『이생규장전』, 김경미 옮김, 『금오신화』, 펍켄클래식, 2009, 48-49면.

면, 최랑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첫 번째 난관은 이생을 시골로 떠나보내고 상사병을 앓던 최랑이 부모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해결되며, 두 번째 난관인 홍건적의 난에서 이생은 달아나지만, 홍건적에게 붙잡힌 최랑은 적극 저항한다. 그 결과 최랑은 사망하면서 비극성의 정조를 드높인다. 그런데 사자(死者)의 몸으로 이생을 다시 찾아온 것은 역시 최랑이다. 이처럼 작품 내내 애정의 성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최랑이지만, 세 번째 난관 앞에서는 이별을 세상의 이치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같은 최랑의 태도는 세 번째 이별의 성질이 앞선 두 번의 이별과 다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주인공들이 이별하며, 남겨진 사람이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생규장전>의 결말은 독자의 연민과 슬픔을 자극하는 페이스스임에는 틀림없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인연을 이어나간다는 비현실성과 낭만성, 생사의 엄격한 질서와 이로 인한 이별의 비애 등은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작중 인물들이 겪는 갈등의 구도와 종결 양상을 살펴보면, <이생규장전>의 서사는 전형적인 비극과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다. 결말에서 이생과 최랑을 갈라놓는 ‘세상의 이치’는 두 사람이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일 뿐 투쟁과 저항의 대상이 아니다. 최랑은 이를 받아들이고 이생을 위로하며, 이생은 최랑과의 헤어짐을 슬퍼하면서도 ‘세상의 이치’ 자체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앞서 최랑은 자신과 이생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이 장애를 만났’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환체를 빌려주었다고 밝힌다. 즉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이별은 선한 두 인물에게 닥친 원통한 횡액이며, 하늘이 정해준 인연과 법칙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랑이 옥황상제의 도움을 받아 이생과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재회가 ‘홍건적의 난’이라는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것이며, ‘세상의 이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생과 최랑이 몇 년간 부부의 연을 연장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세상의 이

차'가 두 서사 주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여 재회를 하고 애정 관계를 지속하는 행복을 누리 기조차 했다.

한편 이생의 죽음이 비극적 결말의 표지라고 보는 시각 역시 이전의 여지가 있다. 대다수의 비극에서 죽음은 비극적 서사의 절정인 동시에 결말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이생규장전>에서 죽음은 인연의 분리가 아닌 재회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을 넘다'라는 제목의 의미처럼 공간의 분리와 월경(越境) 행위가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작용한다.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을 구분 짓는 일차적인 경계선은 최씨의 집 담벼락이다. 최랑이 거주하는 담장 안은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공간이지만, 봉건적 윤리와 격리된 공간이다. 이생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담장 밖의 봉건적 윤리는 이생과 최랑의 첫 번째 이별을 야기한다. 그러나 최랑의 노력은 이생을 다시 담장 안의 공간으로 이끈다. 뒤이어 발생한 전란은 두 사람을 각각 생과 사의 공간으로 분리시킨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이생에게 돌아오고, 이생은 최랑이 사자(死者)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부의 연을 이어나간다. 죽은 최랑이 이생과 함께 사는 선죽리 최씨 집은 생과 사를 초월하는 낭만적 공간인 동시에 상궤(常軌)를 벗어나는 위태로운 공간이다.<sup>17)</sup> 최랑과 이생의 이별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는 월경 행위가 중지되고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다시 엄격하게 분리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생의 죽음은 최랑과의 재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담을 엿보는[窺牆] 일이면서 또 다른 담을 넘는[越牆] 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결말 이후 이생과 최랑의 재회 여부, 즉 <이생규장전>의 행복한 결말/비극적 결말의 구분은 독자의 상상력에 따른 개방적 결말의 층위로 전이되는 것이다.

17) 김창현,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의 비극성과 그 미학적 기제 - 낭만성과 비분강개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28, 온지학회, 2011, 150-154면.

## (2) <운영전>의 결말 구조와 비극성

<운영전>은 <구운몽>과 함께 몽유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운영전>은 꿈을 경계로 발생하는 다층적인 이야기 전개와 이에 따른 시점의 변화 등 높은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주제 의식 역시 참신하여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교육 현장에서 역시 오랫동안 비극적 고전소설의 대표 작품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sup>18)</sup>

<운영전>의 서사 구조는 세 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층위는 이야기의 제일 바깥으로 ‘유영’의 세계이다. 유영은 이 세계에서 봄을 즐기다가 수성궁 폐허에서 꿈을 통해 두 번째 층위의 서사로 진입하게 된다. 이야기의 두 번째 층위인 꿈 속 세계는 신선이 된 ‘운영’과 ‘김 진사’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유영은 김 진사 및 운영과 연회를 즐기고, 김 진사와 운영은 유영에게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과거 회상을 경계로 이야기의 세 번째 층위가 나타난다. 이 세 번째 층위는 운영과 김 진사의 회상과 기록에 의해 전개된다.

<운영전>의 주된 서사는 세 번째 층위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운영과 김 진사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들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와 방해하는 인물들, 그리고 신분적·사회적 장애물을 넘지 못한 두 인물의 자결과 파국 등이 세 번째 층위의 서사에서 전개된다. 세 번째 층위의 서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운영전>은 전형적인 비극적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첫 번째 층위로 서사가 이동함에 따라 <운영전>의 결말 양상은 변화하게 된다.

18) <운영전>은 <이생규장전>과 비극성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한 교과서에서는 두 작품을 엮어서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운영전 제시 후)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슬픈 사랑을 이야기한 소설이다. 비극적 사랑을 다룬 두 작품의 구성을 비교해 보자.”(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 2014, 171면.)



“비록 유음지중(幽陰之中)이나 양인(兩人)이 중봉(重逢) 하였으니 지원(至冤)을 필의(畢矣)요, 수적(讐讎)을 이미 제어(制御)하였으니, 분원(憤惋)을 설(雪)하였는 지라 어찌 그 비통(悲痛)함을 그치지 아니하느뇨. 씨시러곰 인간(人間)에 다시 나지 못함을 한(恨)하느냐?”

김생(金生)이 수루이사(垂淚而謝) 왈,

“우리 양인(兩人)이 다 함원이사(含怨而死)한지라 명사(冥司)에서 그 무죄함을 긍측히 여기사, 하여금 인간에 다시 내어 보내고자 하나 지하의 낙(樂)도 인간에 나리지 아니커든, 하물며 천상의 낙을 이르랴? 이럼으로써 세상에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노라. 다만 그 날 이곳에 와 비상(悲傷)함은 옛일을 추념(追念)하매 비회(悲懷) 조집(布集)함이라. 대군(大君)이 한 번 패하매 고궁에 주인이 없고, 오작(烏鵲)이 슬피 울 때, 인적이 도(到)하지 아니하매 슬픔이 극(極)함이요, 하물며 새로 병화(兵火)를 지내니 화옥(華屋)이 재가 되며, 분장(粉牆)이 다 무너지고 오직 남아 있는 대(臺) 위의 꽃이 아름답고, 뜰 아래 풀이 빛남을 떨칠 뿐이라. 다만 춘광(春光)을 고치지 아니하되 옛날 경색(景色)이 하나도 없고 인사(人事)의 변역(變易)함이 이 같은지라 다시 와 옛일을 생각하매 어찌 슬프지 아니리오.”<sup>19)</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애미의 중요한 요소는 좌절당한 주체에 대한 수용자의 연민을 이끌어내는 페이소스이다. 세 번째 층위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가로막는 부조리한 상황으로 인해 김 진사와 운영이 자결함에 따라 비극적 분위기와 페이소스는 절정에 달한다. 그런데 <운영전>의 작가는 유영과 김 진사의 문답을 통해 운영과 김 진사의 비애를 인생무상에 대한 비애로 전환·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운영전>의 미적 자질이 내부 서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한 비애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작가는 인간사의 비애와 더불어 인생무상이라는 세상사의 이치를 모두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독자가 작품 내의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 유영이다. 유영은 작품 내에서 김 진사와 운영의 입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

19) 이재수본, 김동욱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어우야담·운영전·요로원야화·심설기』, 교문사, 1984, 433-435면.

를 간접 체험하는 청자 겸 독자인 동시에 인생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인물이다. 수성궁 폐허에서 잠든 유영이 수성궁 폐허에서 깨어나는 결말 구조는 회귀형의 결말 구조처럼 보이지만, 이 회귀가 완전한 순환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다. 남루함과 외로움에 괴로워하던 유영은 꿈을 통해 <운영전>의 내부 서사를 겪은 후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속세를 떠나게 된다. 인물의 이후 행적을 밝히지 않는 개방형 결말 구조로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은 <운영전>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소설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20)</sup> <운영전>의 결말 구조는 이처럼 전형적인 비극적 사랑 이야기, 또는 세상사에 대한 깨달음과 허무함을 담은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중층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작품의 다층적인 서사 층위와 서사 층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말 구조에서 기인한다.

<운영전> 속 이야기 구조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운영과 김 진사가 겪었던 비극적 상황 일체가 두 주인공이 지은 죄의 대가로 주체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중 서술에 따르면, 운영과 김 진사는 원래 천상의 인물이며 그들이 인간 세계에서 겪는 애정 파탄의 괴로움은 옥황상제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김생(金生) 왈,

“우리 양인(兩人)이 본디 선인(仙人)으로 길이 옥황 향안전에 뵈셨더니 일일(一日)은 상제(上帝)가 태청궁에 어좌하시고 나를 명(命)하사 옥원(玉園)에 가 과일(果實)을 따오라 하시거늘 내가 반도경실(蟠桃瓊實)을 많이 따 먹고, 사사료이

20) <허생전> 역시 부지소종의 결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 허생이 속세에 대한 욕심을 버린 것으로 볼 수도, 또는 개선 가능성이 없는 속세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잠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에서 주인공 ‘한생’은 용궁의 잔치에 참석한 후 세상의 이익과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이 역시 <운영전>의 결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부지소종 유형의 결말 구조 개별 작품들에서 어떠한 서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운영에게 주었더니 그 죄는 둘이다. 인간에 적하(謫下)하여 인간 괴로움을 갖추 겪게 함이더니 이제는 옥황상제 이미 전(前) 허물을 유(有)하시고, 하여금 삼청(三清)에 올리사 다시 향안전에 모시게 하신지라 때를 타 바람을 인(因)하여 진세(塵世)에 와, 옛날 놀던 곳을 다시 찾아보노라.”<sup>21)</sup>

비극에서 주체를 좌절시키는 세계는 주체가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를 안고 있다. 때문에 주체는 치열하게 세계와 대립하며, 그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다. 하지만 <운영진>의 비극적 상황, 즉 이야기의 세 번째 층위에서 주체인 운영과 김 진사가 겪은 투쟁과 좌절의 과정은 모두 두 사람의 과오로 말미암은 것이며, 미리 하늘의 이치에 의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정은 주체가 자신을 좌절시킨 대상과의 투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장치이며, 좌절 자체를 감내하고 수용하게 만든다. 그리고 작품의 주체인 운영과 김 진사가 겪은 고난에 대한 보상이 천상계에서의 영광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한 보상’의 존재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여타의 고전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서사 속 갈등의 양상을 주체와 세계의 대결로 정리할 때,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의 작품은 세계에 대한 자아의 승리 내지는 세계와 주체의 화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전소설에서 행복한 결말은 주체가 세계와의 투쟁에서 쟁취해낸 것 이라기보다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투쟁 자체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운영진>을 비극이라고 보는 것은 오직 운영과 김 진사의 애정 서사에 국한했을 때만 유효하다. 작품 전체 차원으로 확장되는 순간 <운영진>은 애정의 파탄은 인생무상과 같은 또 다른 주제로 전이되면서 비극성은 한층 탈색되고 마는 것이다. <운영진>은 적어도 ‘비극적 결말’은 아니라 할 것이다.

21) 이재수본, 김동욱 교주, 앞의 책, 435~436면.

##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결말 구조에는 일반적인 비극의 양상과는 다른 개별적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생규장전>의 경우 이생과 최랑의 세 번의 인연과 세 번의 이별 중 마지막 이별은 주체와 세계의 갈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 이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며, 이에 따른 두 사람의 이별 역시 일반적인 비극적 결말의 양상과는 다른 결을 나타내고 있었다. <운영전>의 경우 다층적 서사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사 층위별 결말 구조의 차이로 인해 작품의 메시지가 다양하게 변개되고 있었다.

서사의 결말부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행/불행 여부만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이루는 유기적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다. 다양한 결말 구조의 유형이 작품 전체의 총체성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그 기저에 깔린 작품 향유층의 심리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생규장전>의 전체 서사와 결말 구조는 만남과 이별의 반복을 통해 하늘이 정한 운명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금오신화』로 대표되는 전기소설(傳奇小說) 작품들의 일반적인 특징과도 연관된다. 전기소설의 남자 주인공들은 대체로 한미한 처지에 있으며, 환상적 존재와의 만남이나 기이한 사건을 겪으며 현실의 결핍을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주인공의 행보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의적 비판으로 연결되곤 하는데, 고전소설의 결말 구조를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당대 작품 향유층의 인식과 태도를 관찰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의 경우 두 주인공은 천리(天理)에 의해 한 번 원통한 이

별을 해소하며, 다시 천리에 의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이별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하늘의 이치는 결국 매사를 합당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며,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 할 수 있다.

천리에 대한 믿음과 운명에 대한 수용적·순응적 태도는 <운영전>의 결말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의 시련에 대한 보상과도 연관된다. 주인공이 겪는 일련의 시련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는 여타 고전소설 작품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옥루몽>에서 주인공 ‘양창곡’과 ‘강남홍’ 등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인간계로 내려온 선인들이다. 이들이 인간계에서 갖은 사건을 겪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대가이며, 이후 이들은 천상계로 돌아가 보상을 얻게 된다. <숙향전>의 ‘숙향’ 역시 천계에서 죄를 지은 선녀로 인간계에서 고난을 겪게 되며, 고난 끝에 얻는 애정의 성취는 천상에서 숙향의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이 강조된다. 이는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을 바라는 소설 향유층의 보상 심리와 ‘세상의 바른 이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갈등과 부조리의 양상, 그에 대응하는 인물의 태도는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결국에는 거스를 수 없는 천리가 존재한다는 낙관적 믿음은 고전소설의 작가와 독자층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신념 내지는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작품 속 비극적 서사의 양상이 이러한 낙관주의적 세계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접합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곧 해당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비극적 결말의 작품이라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서구적 비극성의 개념은 분명 여러 문학 작품들의 보편적 특성을 분리하는 데 효율적인 도구이다. <이생규장전>과 <운영전> 역시 페이지소스를 통해 독자의 연민을 자극한다는 비극성의 보편적 특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비극적 정서가 작품 전체에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작품을 ‘고전소설사의 예외적 비극’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방해하고, 개별 작품의 의의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고전소설 작품들의 개별적 특징을 무시한 일반화·단순화는 고전소설 전체에 대한 편파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구성상의 입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행복한 결말이라는 상투적인 구조를 가진다, 권선징악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등 고전소설에 대한 다양한 규정은 작품의 개별성을 고사시키면서 편견을 조장할 따름이다.<sup>22)</sup>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지식은 장기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의 생략과 함께 단순한 암기 지식으로 단순화되기 쉽다.<sup>23)</sup>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작품이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작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작품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 수준에 그친 채 암기해야 할 단순 지식만 축적되어 가는 것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과일반화된 사실적 지식들이 마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선형적으로 제시되고 이것이 작품의 실상을 압도하면서 오히려 작품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방해하는 사태는, 학습자의 삶과 문학의 미래 모두를 불행한 결말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2) 이러한 맥락에서 고전소설에 대한 편견을 조목조목 더듬고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안한 다음의 글이 주목된다. 정출현, 『고전문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진부한’ 고전소설을 새롭게 읽는 우리의 독법』, 『제21회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7.

23) 류수열·이지선·김세립, 앞의 글, 86~87면.

## 참고문헌

- 김시습, 『이생규장전』, 김경미 역, 『금오신화』, 펄클래식, 2009.
- 작자 미상, 『운영전』, 김동욱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어우야담 · 운영전 · 요로원야화 · 심설기』, 교문사, 1984.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2014.
-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비상, 2014.
- 강승업 · 이서영, 『중학생이 즐겨 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새 교육과정에 맞춘 국어 개념 153가지 정리』, 아주큰선물, 2011.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1.
-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파악을 위한 시론-아기장수 설화에 서 바라본 ‘비극’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동아시아고대학』 13, 동아시아고대학회, 2006.
- 김창현, 『『금오신화』, <이생규장전>의 비극성과 그 미학적 기제 - 낭만성과 비분강개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28, 온지학회, 2011.
- 김태준, 박희병 교주(1990),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39.
- 김 효, 『서구 비극과 판소리의 비교를 통한 페이지스의 재조명: 비극성을 초극한 판소리의 비애미 담론을 위한 시론』, 『외국문학연구』 2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 류수열 · 이지선 · 김세림,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사설 시조 향유층 논란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 방현석, 『서사패턴 959』, 아시아, 2013.
- 서대석, 『고전 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관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 서인석 외,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6.
- 윤분희, 『한국 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결말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민희 외,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 창비교육, 2017.
- 정출현, 『고전문학,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진부한’ 고전소설을 새롭게 읽는 우리의 독법』, 제21회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 Aristotle, 이상섭 역, 『시학』, 문학과지성사, 2005.
- Brooks, C. & Warren, K. P., 안동립 역, 『소설의 분석』, 현암사, 1990.

Abstract

## Study on the Tragic Ending Structure of Classical Korean Novel

Kim Hyung-seok · Ryu Su-yeol

In this study, the ending structure is stereotyped around the aspect of concluding the conflict of hero and world within the classical Korean novels and analyzed for trait of each type. The type of ending structure may be classified with the harmony of narrative subject and its world, defeat of narrative subject and deferment of conflict.

In 『Leesaeng-Gyujang-jeon』, the accommodating attitude of narrative subject on destiny is depicted and 『Woonyeong-jeon』 presents the compensation for the tragedy. This type of ending may be considered as different aspect from the general tragic structure where the narrative subject is defeated. In order to make deepen understanding on the classical Korean novels, it may need the analysis of integrated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content in the work.

⊕ **Key Words** : classical Korean Novel, narrative structure, tragic ending, <Leesaeng-Gyujang-jeon (李生窺牆傳)>, <woonyeong-jeon(雲英傳)>